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7년
2018년 2월 1일
음 12월 16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2년 제219호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종사 추대

승단총회 만장일치로 추대, 2월 17일부터 6년간 역할

▲ 제12대 종령 법공 종사

불교총지종은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39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였다. 인선 통리원장의 주최로 열린 승단총회는 오는 2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1대 효강 종령의 후임을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종령 추대를 위한 이번 승단총회에는 전국의 스승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었다. 승단총회에서는 제12대 종령에 법공 종사(法空)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마쳤다. 추대는 종헌 제19조에 의거하여 추대 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으며 종령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제12대 종령으로 추대된 법공 종사는 1943년 경북 영일군 흥해읍에서 출생하였으며 총기 1년(1972) 입교하여 총지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총기 12년(1983)부터 통리원 근무를 시작으로 총지사, 만보사, 성화사, 정각사 주교를 역임하며 교화스승으로 일선 교화를 담당하였다. 또한 제10대와 제13대 통리원장직과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방송 이사, 불교TV 이사를 역임하는 등 종단의 대내외적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총기38년(2009)에 기로스승으로 진원했다. 법공 종사의 추대로 그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시행한 모든 종무 행정에 박차를 가하여 정통밀교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종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공 종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밀교의 전통이 끊겼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 종단이 밀교를 표방하며 대두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선 '밀교'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현교와 인연이 닿아 있던 시절엔 나도 밀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현교, 밀교라는 말도 낯설고, 불교 내에서 밀교는 그저 학문적인 탐구 대상에 그쳐있었다.

밀교의 전통이 끊이지 않고 내려온 티베트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밀교는 차이가 많다. 또한 일반인이 인식하는 불교와의 차이가 크다. 본존으로 진언을 모시는 것, 불상이 없는 것 등이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늘 낯선 것은 경계하기 때문이다.

제행무상이라, 항상불변(恒常不變)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변하지 않았다면 필히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변화 속에 발전이 있으며, 틀에 갇히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유리병에 갇힌 벌레는 더 높이 뛰는 법을 잊는 법이다. 적어도 스스로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본을 지키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유교의 전통을 잇는 향교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박물관처럼 변해버렸다. 현대 사회에 맞춰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교를 믿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보기는 더 힘들다. 청년회라 하여 들여다보면 50대의 사람들이 즐비하고, 학생회 조직은 진작 붕괴되었다. 그에 비해 이웃 종교는 유아부터 고령까지 세밀하게 나뉘어 그에 맞춘 예배일이 나뉘어있기도 하다. 서원당에서 뛰어 놀더라도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가 오면 자연히 부모도 오기 마련이다."라며 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인터뷰 정리)

법공종사연혁

총기1(1972.1.12)년 총지종 입교
총기12(1983)년 통리원 근무
총기18(1989)년 통리원장 직무대행 (총무부장)
총기20(1991)년 총무부장, 재무부장 겸직
총기21(1992)년 통리원장 직무대행
총기22(1993)년 중앙교육원 근무
총기25(1996)년 제10대 통리원장 임명
총기30(2001)년 출세간위. 종사에 승서
총기31(2002)년 제13대 통리원장 임명
총기35(2006)년 법장원장 임명
총기35(2006)년 종단특별지도위원 및 불사법요개정위원장 임명
총기38(2009)년 기로진원

총기 47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1월 18일 총지사, 종단 주요 일정 발표 등

총기 47년 무술년 신년하례법회가 2018년 1월 18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인선 통리원장, 수현 중앙종의회 의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우인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헌화, 훈향정공, 승단하례, 교도일동 하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선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해의 시작인 새해 불공을 용맹 정진으로 마치신 스승님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통리원장으로 큰 과오 없이 종무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교도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며 "올해도 화합하는 종단, 소통하는 종단으로 하나 되어 나갈 것입니다"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기로스승 진원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기로스승으로 진원한 대전 백월사 환수원 전수는 인선 통리원장으로부터 새로이 기로스승 가사를 수여 받았다. (3면 계속)

인선 통리원장은 무술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종령 추대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명단 확인 작업을 한 교도 수계 법회를 9월 경에 봉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도 수계는 수행 단계별 수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으며 법장원, 밀교연구소도 여법한 법요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교구, 사원 단위로 봉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통리원 주요 일정을 밝혔다. 2017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전국 합동으로 단양에서 봉행되었다.

총지사 = 김종열 기자

▲ 신년하례법회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 (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종/조/법/어

좋은 인을 지은 이는 좋은 과를 받게 되고
나쁜 인을 지은 이는 나쁜 과를 받게 된다

지/면/안/내
3면 종조 탄신111주년 탄신대재 봉행 3면 한마음 겨울캠프 3면 가정본존 가지불공 봉행

상반기 49일 불공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업장소멸과 즉신성불을 이루시고,
가정의 재난 소멸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7년 2월 19일 ~ 4월 8일 매일 10시
장소 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26일 조계사 대웅전, 사부대중 3백여 명 참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스님)는 1월 26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2년 무술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종단협 회원 스님들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법회는 사무처장 성공스님의 사회로 조계사 회화나무합창단과 사부대중이 함께 삼귀의례, 반야심경, 원행스님 개회사, 헌등 헌화(승단대표, 재가대표, 정관계인사, 대중), 수석부회장 춘광스님 축원, 부처님전 3배, 회장 설정스님 신년말씀,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 부회장 홍파스님 신년인사, 내빈축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장학금전달, 부회장 편백운스님 신년 발원문, 사홍서원으로 봉행되었다.

설정스님은 신년말씀을 통해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국제 사회 갈등을 풀고 세계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며 "넓게 길을 열어 바르게 걸어가겠다는 새해 서원과 같이 우리 민족 모두가 인류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해로 살아가자"고 서원했다. 이어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이웃부터 자비의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부터 함께 실천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신년인사를 통해 "14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올림픽 정신이 진정으로 꽃피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도 "올림픽의 여세를 몰아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고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하고 자연스럽게 남북통일까지 이루어 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며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통일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확고하게 지켜내는 근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이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사에서 "서유기를 읽고 있다"며 등장인물을 소개 하였다.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은 중생세계의 탐, 진, 치 삼독으로 경, 률, 논에 밝은 삼장 스님의 지혜로 사바세계가 균형을 이룬다는 말을 하며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교계가 앞장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며 불교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어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문대림 청와대 불자회 수석부회장이 축사했다.

태고종 편백운 스님은 신년발원문에서 "저희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종단협의회 회장 설정 스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법회를 마무리했다.

통신원=김태원

조계종 승가교육 개편 다시 시작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조계종이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구족계 수지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다시 한 번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법교화는 승가상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원이 승가교육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 이다.

출가 절벽 시대의 대응책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이었다.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문에 밝힌 개편 과제로는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교수 및 연구자 적정수 유지책 마련 △승가대학 축소에 따른 교수 스님 새 역할 부여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및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기본교육과정 이후 다양한 전법활동 장려 등이다.

이 같은 개편 과제는 모두 출가자 급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 120~130명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가자가 급감하다 보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인 수도 줄어들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중앙승가대·사찰승가대학·기본선원 등으로 분류되며 총 18곳이다.

이중 상당수의 승가대학의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원 측의 설명이다.

현응 스님은 "출가자가 20년 전에 비해 1/3으로 준 현실에서 교육기관 숫자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와 예산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현행 교육기관 중 1/3 가량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교수 스님 등 교육자 스님들의 역할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하며, 해당 사찰의 입장도 있다. 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스님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본교육기관 축소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 조정과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도 "출가자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에 없어질 기관들도 적지 않다"면서 "출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종단도 교육기관들도 유연한 사고로 대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비구니 승가대학장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축소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학제를 조정해서 구족계를 수지하게 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사람이 없을수록 더욱 양질의 교육을 시켜 일당백의 수행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응 스님은 '전법 교화하는 승가상 구현'이 교육원의 목표임을 재차 천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법사 제도와 승가결사체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은 '전법 교화 승가상'을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 1~5급 승가고시에도 전법교화활동 내용을 확대하고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승도 선발한다.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장엄등불사 화합재 봉행

2018년 연등회를 화려하게 장엄할 한마음선원 장엄등 계획이 공개됐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는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2018 한마음선원 장엄등불사 화합재'를 열고, 장엄등불사 돌입을 알렸다.

이날 화합재에는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각 지원장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3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으로 모든 생명들이 모여 한 바다를 이룬 가운데, 어느 생명 하나 빠짐 없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해수공용등은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배 형태로 일체 만물의 근본 불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국인호 한마음선원 청년회장은 "각자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불성을 믿고, 일체가 나와 둘이아니라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장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엄등 불사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해수공용등에 담긴 뜻을 잘 새겨서,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화합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한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하는 스님들의 손길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매년 연등회에서 대상격인 정진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특히 수개월간 청년회와 신도회에서 조직적으로 장엄등 제작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태고종,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 나서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 교육시설 지원 MOU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이 베트남 닥락성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나서 해외구호활동의 모범을 보였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은 1월 8~14일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식수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총무국장 송운스님, 선훈사 도우 스님, 금왕사 지봉 스님, 권영원 태고 해외복지 호치민센터장, 유영수 전라북도 닥락성 한글학교 지원센터 간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복지팀은 이 기간 동안 산골오지 초등학교인 양마우 초등학교 등을 돌아보며 교육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락성이 진행 중인 정치·경제·교육·종교·사회·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양마우 초등학교에 우물관정 시설과 식수대 설치, 정수기 설치 및 관리, 교사 생활관 및 교실 보수공사, 학용품 후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1차 후원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닥락성 외무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구호물자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양마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학교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정수 식수대를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학생들을 위한 향상된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1월 9일에는 호치민 구찌구 텅턴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설치한 식수대를 점검하고 정수기 필터를 교환했다. 또 전교생 680명에게 노트 2040권, 연필 1360자루를 선물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인삼차를 전달했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이희권	12/21	10,000
	한영란	12/27	1,000,000
	전세형	1/5	30,000
	김위식	1/12	60,000
	이복남	1/17	10,000
관성사	인 선	12/22	20,000
	황성녀	1/8	10,000
	인 선	1/19	20,000
기로스승	상지화	12/22	10,000
	수증원	12/22	10,000
	밀공정	12/22	10,000
	총지화	12/22	10,000
	법수원	12/22	10,000
	선도원	12/22	10,000
	법지원	12/22	10,000
	일성혜	12/22	10,000
	불멸심	12/22	10,000
	사홍화	12/22	10,000
	안주화	12/22	10,000
	혜 암	12/22	50,000
	최상관	12/22	50,000
	해 정	12/28	10,000
	원 봉	1/4	10,000
	지선행	1/4	10,000
	상지화	1/19	10,000
	수증원	1/19	10,000
	밀공정	1/19	10,000
	총지화	1/19	10,000
	법수원	1/19	10,000
	선도원	1/19	10,000
	법지원	1/19	10,000
	일성혜	1/19	10,000
	불멸심	1/19	10,000
	사홍화	1/19	10,000
	안주화	1/19	10,000
밀인사	정정희	1/3	5,000
백월사	진 평	1/11	5,000
법황사	박미경	1/18	10,000
삼밀사	신말심	12/26	20,000
실보사	이순옥	1/10	10,000
실지사	정경자	1/8	10,000
운천사	무명씨	1/5	50,000
일원어린이집			
	김용미	12/26	10,000
	하재희	12/26	50,000
	구미자	1/1	10,000
정각사	김문수	12/28	10,000
	안한수	1/7	10,000
지인사	승효제	1/4	10,000
	허성동	1/19	3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26	30,000
	바자회	1/14	200,000
총지사	무명씨	12/27	50,000
	손경옥	1/15	10,000
	원 당	1/16	10,000
	묘심해	1/16	10,000
	신용도	1/19	10,000
	박정희	1/19	10,000
	이수경	1/19	10,000
화음사	무명씨	1/3	10,000
	최영미	1/10	50,000
	강승훈	1/10	5,000
	강승민	1/10	5,000
흥국사	지 정	1/4	20,000
사원무기명	강금례	12/28	13,000
	박필남	1/15	10,000
	김갑선	1/19	10,000

12월 21일 ~ 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 111주년 탄신대재 봉행

1월 29일 오후 2시, 전국 사원에서 봉행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 111주년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탄신대재가 봉행되었다. 서울·경인교구는 1월 29일 14시에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합동으로 탄신재를 봉행하였다.

종령 효강,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서울·경인교구장 법경 정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 각 사원 신정회장 및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이 땅에 정통밀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탄생하셨습니다."며 본 법회 사회를 본 법일 정사의 대성사의 행장소개를 시작으로 고유문 낭독, 유가삼밀, 봉축발원 순으로 봉행되었다.

"오늘은 이 땅에 정통밀교, 한국 밀교를 뿌리내리게 하신 종조님의 탄신을 기리는 뜻 깊은 법회를 올리고 있사옵니다.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기념법회는 이 땅에 부처님의 선법이 펼쳐지는 거룩한 법회이기도 하옵니다" 며 효강 종령은 고유문을 올렸다. 이어 법어를 통하여 "총지종에는 원정 종조님의 부름을 받아 늦게 정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통리원장이 되었고 교육원장, 법장원장 등 종단 주요직을 맡아보는 과분함을 누렸습니다. 이후 종령이란 중책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총지종 교세발전과 종도들의 행복을 사바세계가 다 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종령 13년 세월을 돌아보면 참회할 일이 참 많았다 봅니다.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역사에 맡기고 원정기념관이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항상 종도들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며 회상과 기원을 하셨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오늘, 여러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을 모시고 원정 대성사님을 기리는 탄신대재를 봉행하게 되어 그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며 추위 속에서도 자리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원정 대성사님의 심오한 사상과 밀엄국토를 만들고자 했던 대원(大願)을 받들어 오늘 종조님의 탄신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봉행사를 낭독하였다. 이어 교도를 대표하여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이시여. 항상 욕심 많고 성 잘 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하며 종조 탄신 봉축 발원문을 올렸다. 대구·경북교구에서는단음사에서 안성 정사의 집공으로 승직자와 교도들이 합동으로 탄신대재를 봉행하였다. 탄신대재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봉축과 각령추선을 기원하는 법회이다.

통신원=권순복

불교총지종 한마음 겨울캠프

1월 22일 ~ 2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

청소년 바른 인성형성 프로그램인 불교총지종 한마음 겨울캠프가 2018. 1. 22 ~ 24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후원으로 불교총지종이 주최하는 캠프는 1월 22일 14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묘원화 전수의 프로그램과 자연체험 활동, 별자리 탐험, 칼라테라피, 시상식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졌다.

통리원장 인선은 캠프 참석한 학생들에게 "내년에도 만납시다. 항상 건강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는 여행과 캠프를 통해 호연기지를 배우며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변의 사람과 나누는 자비한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나의 인성 형성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 주기를 주문했다.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한 묘원화 전수는 종단에서 승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양성된 인재로 캠프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묘원화 전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학생들과 '라포형성 우호적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목적가치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나'는 연기적 존재에서 왕따, 셔틀(심부름꾼), 폭력, 담배, 욕,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등의 문제를 다루며 나와 환경의 관계, 나와 주변인들과의 연기적 관계를 통해 중중제망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본 캠프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직접 계획한 여행 프로그램 '나를 찾는 여행'의 후기 발표를 통해 청소년기 인성형성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팀에게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상에 '정 많은 친구들'팀이 수상하였고 이어 정진상에 '추억탐사대' 와 '오합지졸엘리트'팀 등 6팀이 수상을 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 틔움센터에서 꿈틀학교, 오디세이 꿈틀학교, 늘푸른 자립학교, 틔움센터 교사 및 학생 45명이 참가하여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후기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함께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과 함께 각 팀이 다녀온 여행에 대한 소개, 여행 소감 발표를 하였고 장기자랑 및 공연으로 마무리 하였다.

통신원=김평석

백월사 환수원 전수 기로 진원식

1월 18일, 기로가사 수여

▲ 환수원 전수 기로 가사 수여

불교총지종 본원인 총지사에서 환수원 전수의 기로 진원식과 기로가사 수여가 1월 18일 봉행 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환수원 전수의 훈향정공과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으로 진원식은 시작되었다.

유가삼밀에 이어 기로 스승 사령장 및 기로 가사 수여, 공로패수여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통리원장 인선정사가 종령을 대신하여 주관하였다. 이어 마니합창단의 '좋은인연' 음성공양으로 환수원 기로 스승의 복지원만을 노래했다.

환수원 전수는 인사말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진언 밀법으로 정진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선배 스승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화 현장에서 같이 웃고, 같이 노력한 교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종단과 교화를 위한 끝없는 서원과 정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염송정진으로 스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며 스승들과 교도들께 감사를 전했다.

환수원 기로 스승은 총기 11년(1982. 2.15)에 종단 교화스승으로 연을 맺었다. 이후 흥국사, 벽룡사, 시법사 주교를 거쳐 지금의 백월사 주교로 근무했다. 통리원 사회부장 및 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통신원=김평석

법경 정사, 철학박사 학위 취득

박사학위 논문 『대일경 계율사상 연구』

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경 정사는 201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금년 2018년에 학위를 받게 되었다. 5년만의 박사학위 취득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대일경 계율사상 연구』이다. 논문을 통해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의 특성과 사상적 의미를 논구하고 있으며, 밀교 관련 논문 가운데 계율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기불교, 대승불교의 계율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의 상이성과 독자성을 살피고, 그 특성과 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일경』의 성립과 중심사상,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과 그 특성, 『대일경』의 수행작법과 계율의 상관성,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의 근본입장과 사상적 의미 등이다.

박사학위논문은 초록발표를 시작으로 예비심사와 2차에 걸친 본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위를 인준 받게 되는데, 심사와 평가에서 심사위원 5인 가운데 4인 이상으로부터 '우' 평가와 '가' 판정, 그리고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최종심사에서 합격하게 된다. <관련 기사 8면>

총지종 가정본존 가지불공 봉행

휴대가 편리한 소형액자로 제작

총지종은 1월 17일 14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밀교의궤에 따라 가정본존 및 가정 다라니 가지불공을 봉행하였다.

가지불공은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과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가지의궤로 이루어 졌다. 현재 총지종 통리원은 이번 가지 불공을 통해 현대화된 밀교장엄 법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는 "현대는 아파트와 고급 건축물이 많고 여행이 빈번한 생활환경에 따라 현대화된 불공을 할 수 있도록 생활불교의 실천 방편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가지불공한 가정본존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가정본존과 같이 제작된 가정다라니는 기존 액자형에서 휴대가 편의한 소형액자로 제작이 되었다.

구입은 각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정각사 문화강좌(수시모집)

봄학기 개강

◆ 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단장:이상록
지휘자:박윤규 / 반주자:김옥희

◆ 한국화(천 아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안정은
회비:5만원

◆ 스포츠댄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사:소달복
회비:무료

◆ 다도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강사:김정애
회비:무료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수인사 문화강좌

봄학기 개강

◆ 명상 호흡 뇌체조
강사:우명숙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약선식 사찰요리
강사:박금화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 ~ 오후 1시 30분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67 (덕산동 120-1) / 전화 : 054-247-7613

지상 설법

인과법칙

“
인과는 피할길이 없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한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도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허공 위에나 바다 속에나 깊은 산중에 숨어들어도
내가 저지른 악업 재앙은 언제 어디나 피할 곳 없네
”

-『불교총전』 232p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

불교에서는 항상 인과의 법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께서 깨우친 연기법의 한 부분으로 본인이 저지른 인에 의한 과오를 받는 것이지요.

업인과보 삼세윤회라 하였습니다.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받는 것이지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일을 받으면 즐거운 업을 받고 악한 일을 지으면 괴로운 업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지어서 받는 것입니다. 자작자수라 하였지요.

어떤 절대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가 선한 일을 지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 역시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라 하였습니다. 내가 금생에 받는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바에 따른 것이며, 내생의 인과를 받을 것은 금생에 지은 것에 따른 것이지요.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은 내생의 모습을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악업을 지었는데도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하는데도 생활이 녹록치 않은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인과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업인과보 삼세인과라 하였습니다.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라 합니다.

금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순현보라 하지요. 금생에 지은 것을 혹은 전생에 지은 것을 내생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순후보입니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열매도 때가 되어야 익는 법입니다.

금생에 지은 업을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업이든 빨리 받는 것이 좋겠지요. 전생의 업이 두터운 사람은 금생에 복을 지어도 금생에서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지어서 받는 자작자수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겠지요.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수의 세상이라 하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 할 수 있지요. 인간세계의 우주법칙은 그와 다릅니다. 내가 즐겁다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좋은 일을 짓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 역시 내 안에 있습니다.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업을 지어 상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생활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에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종에서 유명하신 스님이지요. 일불식이면 일불작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계율을 지키셨습니다. 생활불교의 원조로 보아도 좋겠지요.

이 스님이 설법을 할 때마다 와서 늘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법이 끝나고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전생에 이 사찰의 주지였지요. 그런 제게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묻기를, ‘참수행인은 인과에 걸리지 않느냐’ 묻기에 ‘불락인과. 참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여우의 몸을 받아 500년을 갇혀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선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은 질문하였습니다. “참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불매인과. 인과에 미혹되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크게 깨달음을 얻어 스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뒷산에 가면 저의 시체가 있습니다. 장례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백장선사에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산에 가보니 과연 노인의 말 대로 여우의 시체가 있었고 백장선사는 스님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행과 인과는 별개로, 수행을 한다고 하여 인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과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인 것을 아는 것이지요. 내가 괴로울 때는 내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염송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송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지요. 법문을 통해 나의 과오를 깨닫고 그 과오를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산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에 지은 업은 고치기 쉬우나 전생의 업은 알 수 없으니 전생의 업을 지우기 위해 염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언을 염송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법문이네, 하는 말을 자주들 쓰시지요. 법문의 다른 말은 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를 찾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는 늘 바깥세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염송을 할 때엔 내 안으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본심을 찾는 것이지요.

총지종의 수행은 염송과 육행실천 삼밀수행입니다. 우리가 늘 염송하는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으로 본심을 일으키는 진언입니다. 본심을 찾는 진언이지요. 나의 허물을 들어내고 본심을 찾아 참회하고 선업을 짓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숙명론,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진언을 외는 것은 전생과 금생의 업을 잘 다스려서 운명을 개척하는 행위입니다. 인과에는 생략된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입니다. 연에 따라 연이 달라져 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를 인,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우는 것들을 연, 그 결과물을 과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품종이 좋은 씨앗을 심어도 날씨가 나쁘거나 제대로 된 비료를 주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로 성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씨앗을 심어도 지극정성으로 햇빛을 쬐어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준다면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을 지어도 나쁜 연이면 과도 나빠지기 마련이지만 나쁜 인을 지었지만 좋은 연을 만난다면 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칼럼 지혜의 눈

탈종교화 시대 종교의 역설(逆說)

“물질 발전할수록 정신의 발전도 뒤따라야”
“필요할 때 손 잡아줄 수 있도록 대비해야”

신년 초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1987’은 한 세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비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군림하던 시절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은 미래의 꿈마저 앗아간 채 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했다. 정치적 후진성과 더불어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한국 영화 역시 그랬다. 오죽하면 유명 배우들이 극장 앞에서 국산 영화 상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스크린 쿼터’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였겠는가. FTA도 그렇고 무엇이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우려가 많던 시절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런 우려를 멋지게 불식시켰다. 21세기 한국 영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불교의 사후 세계를 주제로 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벌’이 관람객 1천만 명을 훌쩍 넘긴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역동성 있는 화면 덕분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것 같다. 비구니 스님이 이웃종교를 주제로 제작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해 화제가 된 ‘산상수훈’도 실험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탈종교사회라고 하는데 무슨 종교영화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두 영화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하다.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일지라도 얼마든지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종교는 인간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의지처이다. 힘들수록 찾고 싶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사람들이 물질에 탐닉할수록 허무감 같은 정신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어 있으니 그 폐해를 치유할 정신적 가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라며 먼 산 불 보듯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물질위주의 경향이 지속되면 훗날 반드시 문제가 커질 것임을 인식한다면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힘겨운 이들이 종교에 손을 내밀 때 제대로 손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우울증은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담이나 마음의 수양을 곁들일 때 치료효과가 배가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고 하니 종교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는가.

이제 종교가 달라질 때다. 필요에 따라 유익한 다양한 방편을 발휘해야 한다. 교리 해석도 기존의 종파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다종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더 많은 이들을 섭수할 수 있고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분주한 것이 무슨 중독증에 걸린 듯싶다. 무엇보다 심신의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내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도 돌아보며 여유로움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자심반조(自心返照)하는 종교가 좋은 도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총지종 입교서

■ 입교개종과 교의대강, 밀교
■ 옴마니반메훔 관법과 공덕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 www.chongji.or.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전화 : 02-552-1080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9

대승장엄보왕경

『관음신앙과 다라니』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이르러서는 다라니가 가지는 문지와 억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다라니 자체가 불법(佛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공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다라니의 수행을 통해서 삼마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마지에 의하여 내면의 번뇌를 제거하여 청정해지듯이 외면적으로도 다라니 자체가 삿된 마(魔)로부터 불법과 법사를 수호하는 호신주의 기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생교화를 위한 구제능력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역할이 확대 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다라니가 문지와 억지의 기능이외에 별도로 재앙을 물리치는 주(呪)나 신주(神呪)의 기능이 더해져서 다라니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밀교경전에서 보이는 다라니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다라니의 본래 기능에 제재초복적(除災招福的)이고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주의 기능이 합쳐져서 밀교의 진언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부분의 초기 밀교경전들은 다라니에 관한 것으로 다라니에 의하여 현세적인 이익을 얻고 재앙을 제거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기 밀교경전의 대부분은 주법(呪法)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의 7세기 이후 현장 등의 한역 역본에는 성불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됨으로서 재앙의 소멸과 함께 무상정등정각의 성취가 다라니 수행 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후 독자적인 밀교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성립과 함께 삼밀의궤와 만다라 등의 수행법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언, 다라니, 명주는 기원과 발전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시대를 지나면서 동일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대체로 길이가 긴 것은 다라니, 몇 구절로 이루어진 것을 진언 이라 하며, 주는 길이에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며, 보통 진언이나 다라니 또는 주를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의 구원력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경전 중에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을 제외하고는 다라니가 붙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히 밀교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음신앙과 다라니 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음신앙 속에 밀교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의 관음신앙은 관음보살의 칭명으로 고액에서 벗어나고 복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관음보살의 명호에 재난을 면하고 복을 부르는 위신력과 공덕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밀교에서의 관음신앙은 대승경전 가운데 관음보살을 등장시켜 다라니로써 밀교적 주문을 포함시킨 것이다.

즉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의 공덕을 관음보살을 내세운 경전에서 다라니를 함께 지송하는 공덕으로 변화시켜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대승경전의 대표적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여 일체가 모두 공(Sunya)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다를 대신주이며, 대명주이며, 무상주라고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반야바라밀다呪가 들어있어 반야를 근본으로 하면서 다라니와 결합하여 그 속에 밀교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능엄경』「이십오원통장」에서는 세존이 어떠한 방편으로 원통의 삼매에 들어가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관음보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여

나는 스스로 음을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자를 관하므로써 저 시방 고뇌 중생으로 하여금 내가 음성을 관하여 곧 해탈을 얻도록 하니라.

고 고뇌중생들로 하여금 관세음보살이 그 중생의 음성을 관하여 해탈케 한다고 설하면서 관음보살이 등장하고 있으며, 능엄주라고 불리는 진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밀교시대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변화관음이 등장하면서 다라니와 함께 밀교경전을 성립하게 된다.

『십일면관세음신주경』의 십일면관음과 『불공견삭주경』의 불공견삭관음과 『여의륜다라니신주경』의 여의륜관음과 『천수천안관세음다라니경』의 천수관음 등이 등장하면서 다라니와 결합하여 관음의 다양한 변화신을 나타내고 다라니는 곧 관음보살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관음보살과 다라니가 결합하여 관음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널리 지송되고 있는 다라니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의 대비주와 『불공견삭신변진언경』의 광명진언과 『대승장엄보왕경』의 육자대명왕다라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육자대명왕다라니는 '옴 마니 반메 훔(Om maṇi padme hūṃ)'의 여섯 자로 이루어진 진언으로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으로 불리고 있다.

법상정사
사성제와 연명의료

고뇌 소멸 진리로 열반 실현

현대 사회에서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 죽음에 문턱에 서 있는 말기환자들의 고통, 이런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고령자들의 노환으로 인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문제도 제기되어 2009년 12월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연명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 논의한 결과 '말기환자 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의료에 한해 중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이 신규제정 되어 일부 시행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2017년 8월 4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일부는 2년이 경과되는 시점 2018년 2월 4일에 모든 부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연명의료중단결정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적인 종교적 교리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처지가 제기되기도 한다.

불교계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정리한 논문들과 간행물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발간된 논문이나 간행물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의 대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생명 존중의 대원칙은 바로 불살생(不殺生)이다. 이러한 대원칙 속에서는 연명의료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는 2,600년 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생로병사 포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인도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으로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를 고뇌 소멸의 진리로 열반의 실현을 말한다.

사성제는 아함경『阿含經』에 나오는 근본불교의 가르침으로 불교 기본 교의 가운데 하나로 諦(Satya)는 진리 또는 깨우침을 뜻하는 단어로 네 가지 높은 깨우침 또는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를 의미한다.

첫 번째 고제(苦諦)는 태어날 때 받는 고통, 사람이 늙어가는 고통, 병들어서 받는 고통, 죽으면서 겪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육체, 느낌, 생각, 욕구, 의식의 오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고통으로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여덟 가지 고통인 팔고(八苦)가 있다.

두 번째로 집제(集諦)이다. 集이란 '발생'이라는 뜻으로 괴로움에는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고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즐거움을 탐하고 추구하는 갈애, 살아남으려고 하는 갈애 등 그칠 줄 모르는 애욕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세 번째는 멸제(滅諦)이다. 괴로움의 소멸 즉, 괴로움의 원인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갈애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상태이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열반의 경지인 것이다.

네 번째 도제(道諦)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며, 괴로움을 소멸에 이르게 하는 행이 8정도이다. 도제는 멸제의 결과로 멸제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 소멸을 실천과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고타마 붓다는 인간이 가지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執着)이나 갈애(渴愛)이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이 道라는 연기관계를 사성제 四聖諦(苦集滅道)로 설 한 것이다. 죽음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다. 다양한 괴로움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죽음의 실존적인 문제이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의 말기에 연명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자와 가족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정정사
한국불교이야기 1

불교의 전래

1. 고구려의 불교 전래

한반도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것을 기록한 자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의 제17대왕인 소수림왕 2년(372년),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2년 뒤, 승려 아도가 왔으며, 그 다음해 2월에는 성문사를 세워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를 지어서는 아도를 머물게 했다.

한국불교사에서는 이렇듯 372년에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을 한국불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통례인데,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372년 이전에 이미 민간 경로를 통하여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수림왕의 불교 공인은 이미 전파되어 있었던 민간 신앙의 불교를 재확인한 것에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전진왕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한 이유는 중국의 북방을 점유하고 남방의 동진과 대치한 상황에서 후방에 위치한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있었다. 이러한 저의를 소수림왕이 받아들이고 기존 민간 불교세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로소 고구려의 불교 공인이 가능했을 것이다.

2. 백제의 불교 전래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12년 후인 384년에 중국 동진의 강남불교가 백제에 전래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침류왕 원년(384) 9월에 호승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왔다. '호승'이라는 호칭으로 보아 마라난타는 아마도 인도의 승려이거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국인이었을 것이다. 백제왕은 이 승려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경함으로써 백제불교가 시작되었다. 마라난타가 백제에 왔을 때 동진의 왕은 효무제(373-396)의 시대로서 동진의 모든 제왕 중 가장 불교를 신봉한 제왕으로서 유명하다.

백제의 이와 같은 불교의 수용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마라난타에게 대한 극진한 대우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 왕실은 마라난타의 신통력과 주술에 의지하여 왕실의 안녕을 빌고자 하였고 아울러 전란기의 동요하는 민중들을 통제할 새로운 지배이념으로써 불교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라난타가 떠나왔던 중국의 동진 역시 북쪽의 전진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동진의 사절과 함께 백제로 건너온 마라난타의 전교 역시 외교적·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3. 신라의 불교 전래

신라의 불교공인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150년가량 늦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제23대 법흥왕 때인 527년(혹은 528년)에 이르러서야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신라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불교의 수용이 원만하지 않아서 불교를 전파하러 온 승려들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였다.

법흥왕에 이르러 군신들이 봉불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차돈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신라에서도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라에서 왕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기둥을 불교로 삼고자하는 왕권의 이해관계와 신앙의 자유와 불교공인을 요구하는 불교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밀 교 유 물

보물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密陽 天皇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천황사
시 대 : 통일신라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상남도 밀양 천황산 얼음골에 자리잡은 천황사 경내에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뛰어난 석불좌상이다.

파손된 것을 새로 만든 머리 부분을 포함하여 체구는 인체비례와 유사한 편인데 우아한 어깨, 당당한 가슴, 날씬한 허리에 얇은 옷의 표현으로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옷은 얇은 층단주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아하고 사실적인 형태는 8세기 중엽의 불상들과 상통하는 면이지만, 얇은 층단식 주름의 세련된 표현은 8세기 후반의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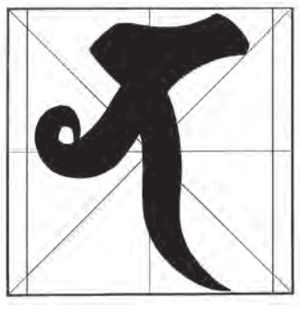
대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이는 독특한 사자좌(獅子座)인데, 상대·중대·하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는 둥근 원판형 윗부분을 약간 높여 정교한 연주문(連珠紋)을 새기고 그 아래에 연꽃무늬를 2겹으로 조각하였다.

중대에는 2줄의 띠를 새긴 얕은 원형받침이 있다. 하대는 복판연화문 위에 11마리의 사자를 환조로 새기고 있는데 정면에는 향로같은 공양구를 끼웠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받침이 있다.

8세기 후반의 가장 우수한 석불상의 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사자좌를 가진 석불좌상으로 크게 주목되며, 학술적으로도 신라 조각사에서 반드시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불상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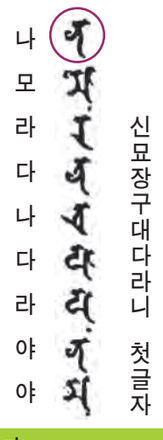
자료제공=문화재청

NA字



NA字 쓰는 순서

경전예문



나(NA)字는 나모의 첫글자이며, 나모는 '귀의'의 뜻이다.

사/원/탐/방

서울강남포교의 중심, 총지사

▲ 사진= ① 총지사 전경 ② 집공하는 주교 정사 ③ 자성일 법회 ④ 원정대성사 공덕비와 성불탑 ⑤ 총지사 설경

재가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강남 포교의 중심지, 총지사

▲ 불교총지종 총지사 약도

총지사 오시는 길:

▶ 버스노선 (정류장번호 23-313 총지사)
버스간선 147번 (월계동~도곡동)
순환41번 (탄천~개포동)

▶ 지하철노선
지하철2호선 역삼역 1번출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향 600m(도보 9분거리)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절을 보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다. 절이라 하면 서울 근교 산자락정도는 가야 할 것 같고, 오래된 문화유산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다수다.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볼 때마다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현대화된 사원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누구나 쉽게 입교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갖춘 것이다. 강남구 한복판 역삼동에 자리 잡은 총지사도 마찬가지이다.

역삼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앙부에 위치한 동이다. 조선시대 때 역촌이었던 말죽거리, 상방하교(윗방아다리), 하방하교(아랫방아다리) 세 마을을 합쳐 역삼리라 한 데서 동 이름이 유래되었다. 인근 양재역 근처는 역(驛)이 설치되어 있어 역말이라 불리웠고, 말죽거리는 말에게 죽을 먹이는 거리라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조선 시대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피난 가다가 말에게 죽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웃방아다리라는 이름은 방아다리의 웃마을로서 현 테헤란로 부근 국기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총지사는 40년 전인 1977년에 개원하였다. 종조 원정 대성사는 서울에 위치하며 전국에서 수행중인 불자들이 같이 정진하기 좋은 본원의 자리를 찾았으며, 현재 총지사의 부지를 마련하여 서원당을 건립하였다. 당시 총지사의 주변은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농촌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포교의 여건은 용이하지 않았으나 수행을 하기엔 알맞은 공간이었다. 그 후 서울의 강남 지역이 개발되었고, 강남 불패 신화와 함께 총지사 역시 개발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역삼동 주민들에겐 총지사는 사원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종교를 넘어서 문화센터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원 안팎으로 열리는 많은 행사는 불교와 문화가 융합되어 알려지는 계기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2014년에는 '어울림'이라 불리는 힐링종합센터를 개원하였다. 어울림은 '바른 삶,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목표로 하며 명상과 상담 등 요가, 태극권, 위빠사나같은 힐링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총지사는 총지종의 본원인 만큼 종무행정의 중심인 통리원 건물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총지사의 대문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는 총지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통리원 건물 앞으로 두 개의 탑이 있다. 총지사 건립을 위해 보시하고 희사해주신 분들을 기리는 성불탑과 2017년에 제작된 종조 원정대성사의 업적을 기리는 종조 공덕비이다.

총지사는 총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는 공양간과 많은 행자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신정회 모임을 위한 회의실, 총지사 종무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이 1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2층엔 종조 원정 대성사를 기념하는 원정기념관이 있다. 원정기념관에서는 종조의 유품과 서적, 불경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3층에 서원당이 자리 잡고 있다.

즐거운 수행도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원당

▲ 사진= ⑥ 2017년 부처님오신날 행사 ⑦ 마니합창단

서울 경인 신정회 지회장인 김은숙 보살은 인터뷰 내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초파일에 연등행사를 하잖아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조계사까지 걸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일흔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걸어요. 걷다 보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마냥 즐거워요. 어린 아이가 놀러가는 것 처럼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보살님들과 함께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냐는 질문에 "매 시간이 특별하여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 나면 보살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김장 나눔도 하고요. 전라도 흥국사 만다라 요양원에 들러요. 여건이 되지 않아 멀리 갈 수 없을 때는 사원 내외의 쓰레기라도 줍습니다. 꼭 어디 멀리 가서 큰일을 해야만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하고 대답했다.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나눔의 봉사활동에 관해 이야기 해주는 김은숙 회장 보살의 얼굴에선 환하게 빛이 났다.

신정회 회장직을 맡은 박정희 보살은 총지사에 다닌지 42년째로, 회장직을 맡은 지는 이제 3년 차이다. "처음 불교에 대해 잘 모를 때, 복지화 스승님 설법 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 머릿속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이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을 떠올리면 세상 만물이 감사했어요. 내가 인간인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복에 비하면 내가 느끼는 괴로움 같은 것들은 너무 하찮게 느껴졌죠." 박정희 보살은 옛 복지화 스승을 회고하며 언급했다. "초파일, 종조 탄신일, 하례 법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절대 혼자 힘으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젊은 보살님의 각자님은 총지사에 '취직' 잘 했다고 표현하실 정도에요. 제가 절에 가는 목표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 그의 삶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저의 행복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총지사에 오는 모든 보살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모든 분들도 복되길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더 이상 '절'을 산 속에 있거나 문화유산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란다. 총지사는 현대화된 사회에 알맞은 절이다. 종교의 기능과 동시에 여가생활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새해 목표와 덕담을 부탁하는 질문에 "무엇보다 교화의 활성화를 가장 바랍니다. 교도가 더 늘면 좋겠지요. 그리고 모두가 화합하여서 즐거운 수행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교인 원당 정사는 전했다.

주교 : 원당정사

전화 : 02-552-108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신행담

김은숙 보살 부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덕을 베푸신다

입교는 부산에 있는 정각사를 다닌 것이 처음으로, 30년도 전의 일이다. 나를 교화시킨 보살님은 정각사에 8년 정도 다닌 보살님이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공양간이 없어서 서원당 아래 식당에 가서 천 원짜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천 원짜리 식사도 행복했다. 서원당에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즐거웠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대로 불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늘 나를 교화시킨 보살님 옆자리에 앉아 하나라도 더 배우려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같이 불공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모두 학교 성적이 특출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길 원했다. 특히나 막내아들이 입시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불공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가 시험을 크게 못 치지 않았는데,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 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울만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했다.

현재 나의 큰 아들은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여 무역 관련 사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이점이라 생각한다. 막내아들은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하여 지금까지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역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누리기 힘든 경험이지 않을까 싶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바람이 참으로 근시안적이라 느껴진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해로운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절대 주시지 않는다. 멀리 보시어 원시안을 갖고 덕이 되는 것으로 주신다. 내가 바란 자식의 행복은 오직 '서울대학교'라는 작은 부분에 갇혀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멀리, 더 크게 보아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공덕을 베푸신다. 그러니 나의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오직 정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무엇이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은 내가 힘들다 싶어도 멀리 보면 모두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정진하고 노력하면, 부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으로 돌려주신다. 현재 자식들의 행보는 모두 만족스러워 늘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하였어도 계속해서 서원당에 다녔다. 염송을 집중해서 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가슴에서 환희가 일었다. 꼭 나의 어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또 나의 바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깨우침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유독 좋아하고 마음에 와 닿은 설법 내용들은 주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엄격한 유가(儒家)에서 자랐는데, 그때 가정에서 배우고 깨우친 효심과는 또 다른 효심이었다.

나의 남편은 셋째 아들로 나는 셋째 며느리인데도 시부모를 30년 넘게 모셨다. 하지만 그것을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다. 희생이라 생각지도 않았다. 부모를 복의 공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부모는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공장과 같다. 부모에게 잘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복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내 복을 짓는데 내가 힘들 이유도, 희생이라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내가 큰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모두 나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신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절엔 대충 다니고 놀자는 유혹이 많다. 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날부터 불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흘러가던 일도 꼭 한 군데에서 틀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일생을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못한 자리를 맞기도 했다. 열심히 불공하다 보니, 어느 날 신정회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있었다.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총지종에 입교하지 않은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을 특별하게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는 여전히 거침이 없고 구김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일단은 해본다. 내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았다. 다들 원하는 것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또 모든 교도분들도 부처님을 기둥삼아 주체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신행담

김성민 보살 진언과 차별 희사로 생활의 지혜를 만들다

총지종과 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덕과 공이 제일 큽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의 몸이 약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과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마음에 엄마의 몸이 많이 나빠지면 혹시나 계모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계모가 들어오면 행여나 나와 형제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에 휩싸여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어머니를 따라 절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사학년 때였는데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각에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불공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서원당에 가는 것을 따라가고, 불공을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니 총지종 생활은 자연스럽게 저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교리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인품 좋은 스승님과 성격 좋은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 다니고, 수다를 떠는 게 재미있어서 부지런히 절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절에 다니는 걸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신발 닳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서원당에 나가고, 서원당에서 시키는 건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헌신적이며, 마음이 착한 어머니의 말씀이니 더욱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바람을 따랐습니다.

설법시간에 들었던 교리를 몸소 실천한 일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직업으로 삼으려던 아버지가 버스 노선 하나를 따기 위해 회사를 찾아다니던 때였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 복판에 오천 원짜리 다발이 놓여있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오천원 다발이면 꽤 큰돈이었습니다. 돈을 주울까, 어떻게 할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문득 복지화 스승님이 설법 중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일은 하지 말라던 문장이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히 들렸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에는 시간이 마땅치 않기도 했고, 뭔가 께름칙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복지화 스승님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 건드리지 말자.' 라며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땅을 판다고 십 원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참 아까운 돈을 눈앞에서 놓친 것 같다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 길에 가서 아직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냐고 부모님께 묻자 아버지는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딱히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적지 않은 돈이 아직 길에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깝기는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런 대로 지내는데 얼마 안 있어 누군가가 학교 등록금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찾아진 건 참 다행인 일이었으나 만일 내가 당시 탐심을 부려 주인 잃은 돈에 손을 대었다면 어떤 창피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졌을 지를 상상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 아버지가 면접 본 버스회사에서 아버지를 채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아마도 탐심을 부리지 않은 저와 아버지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도 길 위의 돈을 건드리지 않기를 잘한 것 같다며 첫 월급의 많은 부분을 제게 주며 희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방끈이 짧은 것을 평생 애석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자식들의 교육에 누구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형제들은 외국에 나가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유학을 하는 등의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부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집안에 자신의 공부를 지지해주는 어른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야학을 다니며 한글을 깨쳤음에도 언제나 공부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토지를 조금 물려주셨는데, 그게 영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서원을 해도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지를 않아 며칠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어머니의 평소 학구열이 반영된 대책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동해중학교에 땅을 기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증 후 오래지 않아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옳은 방향으로 어머니의 재산이 쓰였다는 것의 반증이나 다름없었기에 무척 뿌듯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이치를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아픈 지난날이 있었기에 저와 저의 형제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둘째,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을 어머니의 종교관과 바람대로 쓰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었다는 것. 셋째, 바로 그러한 결정은 어머니의 배움을 받고 종교를 물려받은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행하였다는 것. 이것은 베푸는 순환이었습니다.

복지화 스승님이 매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평생을 잊지 말고, 수원은 일시라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역시도 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언제 어디서라도 가슴에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괜한 탐심이나 미움, 원망도 수그러들 뿐 아니라, 마음이 관대해지고 평화로워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좀처럼 불안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할 때에는 진언과 함께 차별 희사 하나면 만사가 해결이 된답니다. 어머니를 따라 총지종을 다니게 된 이래로, 극적인 입교 계기도 없고 또 극적인 인생 역전의 장면도 없는 것만 같지만 일상에 스며든 총지종의 교리와 귀중한 설법이 생활의 지혜가 되고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듯 탐심에 흔들리지 않고,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순리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연재 법경 정사 철학박사 학위논문 요약(상)

『대일경 계율사상 연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은 보리심을 계체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보리심은 경의 중심교설이자 사상인 동시에 계율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을 보리심계라고 한다.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은 삼귀의계, 오계, 십선계, 그리고 삼매야계로서 사중금계와 십중금계 등이다. 여기서 핵심 되는 계율이 사중금계와 십중금계이다. 보리심을 계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귀의계, 오계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 세기를 거쳐 『대일경』에도 그대로 언급되어 있고, 십선계는 대승보살계로서 밀교에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일경』에는 밀교의 독자적인 계율로서 사중금이 강조되고 있고, 『대일경소』에서는 여기에 여섯 가지를 더하여서 십중금을 명시하고 있다. 사중금은 기존의 살(殺)·도(盜)·음(婬)·망(妄)의 사바라이(四波羅夷)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네 가지 바라이(波羅夷)이다. 즉 정법을 버리지 말라, 보리심을 버리지 말라, 일체법에 인색하지 말라, 일체중생에 이익 되지 않는 행을 하지 말라는 네 가지의 중금이다.

십중금은 대승불교의 십중(十重)과 달리 보리심과 정법, 이타행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것으로, 『대일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십선계이다.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십선업도라 하여 업사상에서 언급된 십선이고, 십선계는 대승불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십선의 계율이다.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과 특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초기불교의 계율과의 동이성(同異性)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승보살계의 계승과 독자성이다.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불교의 계율과 다른 점을 살펴 보자.

첫 번째, 계를 제정하는 이유와 목적을 율장에서는 십구의(十句義), 십리(十利)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일경』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강제성이 없고 율법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다.

세 번째는 초기불교에서는 수범수제(隨犯隨制)에 의해 250계의 구족계가 갖추어졌지만, 밀교에는 수범수제(隨犯隨制)에 의해 계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십선업도의 경우 아함이나 아비달마에서는 십선을 업도(業道)로서 설하고 있는 반면, 『대일경』은 십선을 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대일경』의 삼귀의와 오계 등의 내용이 성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일경소』에서는 삼보(三寶)와 더불어 삼신(三身), 삼인(三印)을 가리키고 있으며, 삼귀의에 두 가지를 더 하여 진언(眞言)과 인(印)에 귀명한다고 설하고 있다. 오계는 불음주(不飮酒) 대신에 불사견(不邪見)을 설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바라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성문의 사중금은 살·도·음·망의 사바라이이지만 『대일경』에는 정법과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등의 4가지의 중금(重禁)이다. 그리고 바라이를 범했더라도 참회를 하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다. 성문에서는 다시 계를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추방된다.

일곱 번째, 수계의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성문의 경우는 십선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지만 『대일경』과 『소』에서는 십선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 설해지고 있다.

여덟 번째, 밀교의 수계는 일반적인 불교의 계문(戒文)과 달리 각종 진언과 결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홉 번째, 성문과 같이 별도의 수계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법과 작법 속에서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즉 만다라 행법 속에서 수계가 병행된다.

열 번째는 초기불교에서는 바라제목차의 형식을 띈 별도의 율장이 있으나 밀교 경전에는 바라제목차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열한 번째는 밀교의 계는 보리심을 계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리심을 바탕으로 삼밀수행과 수법, 작법이 갖추어진 경우는 밀교의 보리심계 밖에 없다.

열두 번째는 신어심의 삼밀이 곧 계라는 점이다. 밀교에서 계를 실천하는 수행방편으로, 삼밀수행이 설해진다는 것이다.

열세 번째는 불십선(不十善)을 범하여도 자비와 지혜방편에 의한 것은 불범(不犯)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불교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열네 번째, 율장에서는 '생명'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일경』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대자비심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열다섯 번째는 성문의 10차13난과 같은 차법(遮法) 대신에 비밀대승에서는 아사리와 제자의 자격과 덕성, 수행자가 지켜야 할 금계(禁戒) 등을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과 다르다.

열여섯 번째는 보리심의 증득과 이타행을 구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차제적(遮制的)인 금지조항이 아니라 정보리심(淨菩提心)에 기반한 지(智)와 비(悲)의 방편으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자발적인 실천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열일곱 번째는 방편이 다르다는 점이다. 초기불교는 고통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지만, 밀교에서는 방편을 통하여 보리심을 증득하는 것을 구경으로

법경 정사의 철박학사학위논문을 요약 하여 상 · 하 2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사라하의 노래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후기밀교의 한 갈래인 사하자야나는 삼보와 스승에 대한 절대적 귀의를 통해 번뇌와 알음알이를 짧은 삶 동안 태우는 실천중심의 수행을 지향한다. 이들의 시를 담은 벵갈의 도하문학은 실용적 경향의 불교를 전하는데, 여기에는 논리학자와 형식적 의례에 빠진 밀교사제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보인다. 사하자야나의 전승은 <마하무드라의 노래>와 <사라하의 노래>, <84성취자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밀라레빠의 십만송>은 마르빠를 비롯한 티벳인들의 구도와 전승을 담은 것이다.

사하자야나가 남긴 오도의 시들은 고 벵갈어로 티벳대장경에 현존한다. 사하자야나의 원류는 붓다로 거슬러 올라가 아들인 라훌라로 전해지고, 다시 쉬르끼르띠로부터 사라하–용수보살로 이어진다. 라훌라로부터 쉬르끼르띠까지는 무려 천삼백 여년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승은 역사적 실존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서 용수보살은 중관학파의 용수가 아니고 <비밀집회딴뜨라>의 한 유파로 10세기경 활동하였다.

사라하는 <84성취자전>에 등장한다. 사라하는 동인도 라즈니Rajnī 출신으로 바라문교의 위대한 학승으로서 마하빨라왕의 스승이 되어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출가해서는 나란다사 대학에서 현교와 밀교를 수학했다. 마지막에는 대학을 떠나 화살을 만드는 낮은 신분의 젊은 여인을 요기니로 받아들여 대성취를 이루었다. 사라하는 '화살로 관통한다'는 뜻으로 딴뜨라의 깊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라하 이후 전승은 깐하Kanha, 샤와리 Savar, 루이빠 Luipa 등으로 이어지면, 이미 친숙한 틸로빠와 나로빠에게 전해진다.

사라하의 밀교수행은 후원자인 마하빨라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라하가 타락한 것으로 오해한 왕은 네 명의 브라만을 보내 설득하려 하였다. 사라하는 160송의 시로 이들을 감화시켰고, 다시 왕비를 위해 80송, 마라빨라왕을 위해 40송의 시를 남겼는데, 지금도 전해진다.

<사라하의 노래> 제1 게송에는, "고요한 연못 위에 바람이 불면 수면(水面)은 파도로 부서지듯 왕(王)이여, 그대는 나를 여러 측면으로 생각하지만 나 사라하는 한 사람이네"라고 하였다. 마음현상을 수면의 파랑에 비유한 <능가경>의 도입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15번째 게송에는, "어리석은 자는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착각하네, 진리를 거절해 버린 마음이여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네"라고 하였다. 마음의 경계를 비실재의 공성으로 보고, 형상을 만들어 내는 마음에 주목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가행중관파의 논리이다. <사라하의 노래>에는 열반, 유식, 인식, 연기공성 등 주요한 대승의 교학이 게송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사하자야나 싯다들의 실용적 경향은 밀교수행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만 결코 교학의 기초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면의식의 경험에서 야기된 번뇌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삶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인간의 피붙이로 태어나 육신의 욕망과 갈증을 끌어앉고 성장하면서 사회적 권위와 가식, 폭력을 익히며 스러지는 몸에서 병고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외로이 죽어간다. 싯다들은 존재의 현실을 피하지 않았다. 무수히 나부끼는 의식적 습관들을 버리고, 권력, 돈, 갈애 등의 욕망을 마주했다. 그래서 천족의 요기니와 살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시장에서 매춘부와 어울려 살았다.

인도 사하자야나의 성립은 10세기 전후 극렬해진 이슬람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인해 불교교단이 더 이상 인도에서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교단의 흥망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문헌의 문학적 수사나 논리적 유희를 거부한 배경일 수도 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티벳인인 마르빠 Marpa는 꿈속에서 사라하로부터 관정을 받고, 오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밀교 수행자들은 사하자야나의 스승들로부터 여전히 관정과 가피를 받는 이적들을 보인다. 밀교의 스승들은 열반에 들지만 성취자로서 법신과 화신을 성취한 분들이며 여전히 유정의 고통과 함께 하며 그들을 찾는 제자들에게 가피를 내리는 것이다.

닥터펫 동물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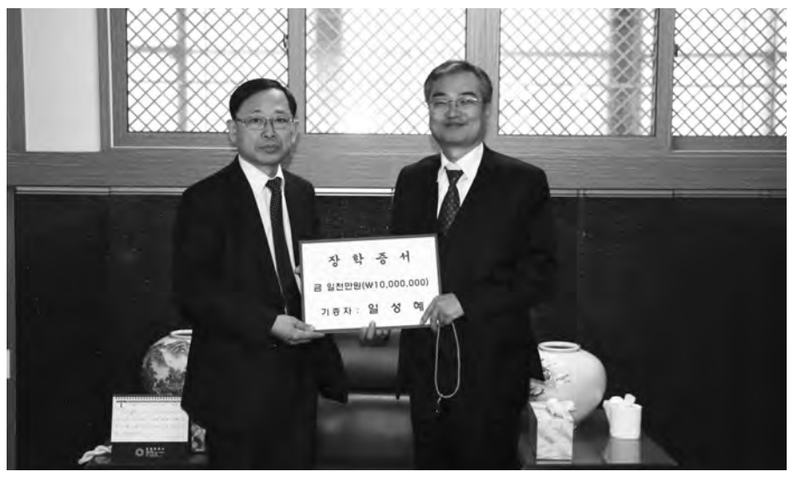
서부산 최대규모 동물병원

내,외과 전공의 진료
일요일,공휴일 진료
야간응급진료
24시간 입원환자 관리

원장 권도형, 김영화 화음사 교도
ADD.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6, 블루스카이 201호 Tel. 051.891.8575

동해중 소식

일성혜 스승님의 동해중학교 학교발전기금 1천 만 원 기탁 미담



2018년 1월 19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일성혜 기로 스승님께서 동해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시면서 전해 주신 학교발전기금 기증 전달식이 있었다. 이 날은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인선)도 함께 겸하는 자리에서 전달 전수되는 일이라 더욱 더 의미가 깊고 이사회에 참석하신 이사님들도 함께 격려해 주신 감동스러운 자리였다.

일성혜 스승님은 교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암 대종사님(동해중학교 제2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전수님이자 법수연 전수님의 자당이시기도 하다.

평생을 우리 총지종 종단 발전과 교세 확장을 위한 노력해 오심은 물론 대중 교화를 위해 온 몸 바쳐 헌신해 오시면서 존경을 받아오신 분이시다.

당신께서는 한사코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고 말없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시는 각별한 당부가 있으셨으나 학교에서는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라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평소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으셨던 청암 대종사님의 뜻을 따르고 일성혜 스승님의 학교에 대한 애정 깊은 관심과 격려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함께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신 소중한 일인 만큼 학생들의 가슴과 교직원들의 심중에 깊이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일이 되도록 학교 도서관에 길이 그 이름을 새겨 남기고자 한다.

동해중 발전 기금은 2017년 10월 24일 총지사 김성민 불자도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1천 만 원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역삼한담

'자비나눔', 불교가 가진 강력한 사회 솔루션

불교적 '자비네트워크' 확산 필요해
광화문 사랑의 탑 온도 뜨뜻 미지근, 기부 문화 불신 등이 가장 큰 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탑'의 온도가 올해 매우 낮다는 보도가 잇달아 전해진다.

각 언론 매체의 제목이 '후끈' '기대이상' '훈훈' 등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미지근' 등이 많다. 가뜩이나 한파와 미세먼지로 힘든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메말라진다.

1월 16일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90도를 나타내고 있다. 목표인 100도에서 10도가 모자르는데 언제쯤 달성될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이 많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분명 동파상태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거론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선 자신도 어려운데 주위를 돌볼 여유가 없을 거라고 백번 이해하더라도, 자선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은 기부를 하는자와 받는자 양쪽 입장에서 서로 깊이 고민해 볼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128억 원의 기부금을 유용한 '새희망 씨앗 사건'과 희소병을 앓는 딸의 치료기부금 10억 여원을 탕진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다. 특히 여중생 살인범 이영학은 딸의 희소병 치료를 도와 달라며 모은 10억 원대 후원금 대부분을 고급차를 구입하고 차량 튜닝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설상가상으로 가짜 구세군 자선냄비도 등장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뜻 깊은 일에 쓰라고 온정을 베풀었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외려 역풍을 맞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든 대형 사건의 여파로 기부문화 자체가 위축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불신으로 기부문화의 숭고한 뜻이 꺾여서는 안된다. 언론과 비영리단체(NPO) 등이 나서서 기부를 빙자한 사익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기부문화의 가치와 방법을 재정립 시켜 다시 나눔 확산 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기부문화가 사라진다면 이 추운 겨울 힘겹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등 우리의 이웃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부 문화는 다시 대중들의 신뢰를 찾고 활성화 돼야 된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보면 감정과 열정으로 선행을 하지 말고 결과의 효율성을 고려한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당부한다. 이해는 가지만 보통 일반인이 그 결과의 효율성을 어찌 알겠는가? 또한 자선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기적 이타심은 자선 행위의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랑의 탑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사회가 점점 무연사회화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연사회는 혼자 살고 또한 혼자 죽기도 하는 사회이다. 무연사회라는 용어는 불자들에게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부처님 핵심 가르침이 연기론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연기론의 핵심은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존재는 여러 인드라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그 연결망이 훼손되고 끊어지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결혼의 기피와 저출산,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이혼 등 으로 가족 해체와 같은 무연사회의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계를 벗어나 홀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혼자인 사람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홀로 사는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관계 자체에 불편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홀로족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홀로족이 된 사람도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처이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온다. 인류 정신사의 중요 덕목인 자비, 사랑, 중용, 인, 의, 예, 지, 신 등은 모두 함께 살기 위한 공동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런 무연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불교는 자비나눔이라는 큰 그릇을 갖고 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무연사회를 뛰어 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 불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일일 것이다.

이제 자비 실천 과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구조의 자비 네트워크화라는 윤리적 차원의 확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불교는 '이 뭣꼬' 화두보다도 자비화두가 더 절실한 상황인 것 같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국민연금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35만명 육박

임의계속가입자 2010년 5만명→2017년 34만5천명 7배↑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7년 12월말 현재 34만5천292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2010년에는 4만9천381명에 머물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으로 매년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다.

이후 2016년 28만3천132명을 기록한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돌파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무려 7배나 급증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또 2017년 12월말 현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7천723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박남오 기자

병들거나 실직한 대출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구축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출을 받는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대출자에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을 예방하면서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계 대출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자체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연체 우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채무조정 때 연체이자 감면 우대 혜택을 알리는 등 목적으로 연체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와 캠코, 각 금융업권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수지 기자

2018년에 새롭게 변한 제도

일자리 창출 & 지원 확대

소방, 경찰, 복지, 안전 등 일자리 2만 7천개 창출
생활체육지도사 교통비 10만원 지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기본운영비가
월 473만원 ==>516만원으로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만 0세 ~5세까지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
(소득 상위 10%는 제외)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100% 지원
육아휴직이 출근으로 인정, 난임휴가 신설

신입사원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6월부터
신입사원 11일간 유급휴가 주어짐
출퇴근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받음

부동산 제도 대거 실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양도세 강화,
부채상환비율(DTI) 계산시 부채 반영 등

어르신 기초 연금 인상

9월부터 월 20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계획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6,470원 ==> 7,530원
군 병사 월급인상 병장 기준 216,000원 ==> 405,000원

자사고, 외고 우선 선발 폐지

자사고와 외고 선발이 폐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

종교인 과세 시행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에서 선택 가능

총지만평

김홍균 작가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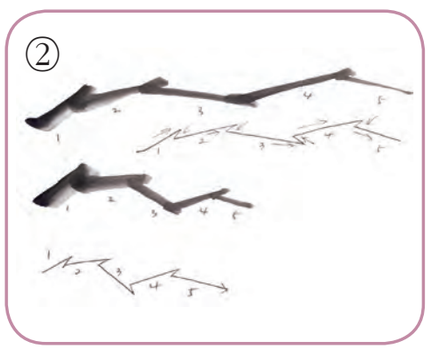
梅蘭菊竹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매화그리기

1. 매화그리기 순서
   몸통(줄기) ==> 가지 ==> 태점, 약지(若枝) ==> 꽃

2. 줄기그리기 : 몸통(줄기)은 담묵으로 그린다
   ①~⑤ : 담묵으로 그린다
   ⑤~⑧ : 농묵에서 짙은 먹물로 그린다
   담묵 : 엷은묵, 중묵, 농묵 순으로 먹을 찍어 그리는 먹물의 농도



· 뒤로 뻗은 줄기도 담묵으로 그리면 원근감이 생겨 공간이 넓어 보인다.
· 줄기는 지그재그식으로 그린다.
· 생각하고 그리면 줄기의 마디 표현이 자연스럽다.

왕초보 불교 심리학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 심리학(心理學)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심리학을 말 그대로 설명하면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 땅에 인류가 처음 출현했던 역사 이래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며, 인간이 하는 행동과 마음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마음의 본성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실체를 밝히고자 많은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은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컨트롤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의지를 벗어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마음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여 학문적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마음(心)이라고 하는, 즉 인간의 정신적인 현상과 그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 심리학이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대뇌에 있는 영혼이 작용하여 마음이라는 정신적 활동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했다.

대뇌의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밝혀지게 된 것은 대략 1500년경인데 그 선구자는 레오나드로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이다. 그는 사람의 뇌, 골격, 근육 등을 해부학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과학적인 해부도를 그렸다. 죽은 소의 머릿속으로 왁스를 부어서 식힌 후 뇌의 다른 부분을 재거하여 대뇌의 모습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도 마음은 뇌에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대뇌생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대뇌와 그리고 그에 연결된 신경계나 내분비계 등의 작용이 바로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수께끼는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어쩌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마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의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불교 또한 2천년 이상 동안 인간의 심리를 주시하며 성찰하여 그 마음의 실체를 잡고 거기에서 구원과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공부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절대자에 의한 구제를 거부한 붓다에게 있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그 뒤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수행자들도 붓다를 따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성찰을 깊이 하고 자신에게서 스스로 그 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불교의 역사는 마음탐구의 역사라고 주장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찰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려고 했던 불교 수행자들은 마침내 마음의 영역을 논리화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수행자들의 시도와 주장은 불교에 또 하나의 흐름을 이끌어 내게 되는데 그것이 유식(唯識)불교이다. 유식의 "식(識)"은 크게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이고 유식(唯識)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오직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유식불교의 주장을 요약한 명칭이다. 이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관찰하여 그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다는 의미이다. 유식은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심리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학과 유식불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학설은 있지만 그 부분은 매우 작고 또한 연구도 현재까지 미미하기 그지없다. 현대 심리학의 역사는 100년을 겨우 넘기고 있고 주로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주의, 실험주의, 객관주의 같은 서양학문 풍토 속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세계2차 대전 후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적 장애를 치유하는데 까지 활용되기 시작한다. 이는 인간고통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고통을 치유한다는 불교의 심리학적 교설과 현대 심리학의 심리치료는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다르다. 불교는 출세간의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심리학의 심리치료는 세간의 적응과 성숙을 목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의 심리치료도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욕망, 감정, 습관, 신념 등과 같은 집착과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구속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해탈과 열반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 수 도 없다.

절 기 이 야 기

입춘

삼밀사 주교 남혜 정사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일 때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어떤 해는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드는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이기 때문에 농경의례와 관련된 행사가 많다. 입춘이 되면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각 가정에서는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인다. 입춘축을 달리 춘축(春祝)·입춘서(立春書)·입춘방(立春榜)·춘방(春榜)이라고도 한다. 입춘축은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붙이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여 써서 붙인다.

입춘이 드는 시각에 맞추어 붙이면 좋다고 하여 밤중에 붙이기도 하지만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는 써 붙이지 않는다. 입춘축을 쓰는 종이는 글자 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가로 15센티미터 내외, 세로 70센티미터 내외의 한지를 두 장 마련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한지를 마름모꼴로 세워 '용(龍)'자와 '호(虎)'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한다.

불가에서는 입춘을 맞이하여 입춘불공을 올렸는데 동지불공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왔다. 불교에서도 입춘방과 같이 다라니(眞言)를 적어서 문이나 기둥에 붙였는데 조선시대 정조임금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나오는 진언을 인쇄해 나누어주고 대문 등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게 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다라니를 민간에서는 부적과 같이 신성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입춘은 불자들에게 근면함과 보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전 농가에서는 입춘을 맞아 아홉자리란 민속이 성행했다. 이 민속에는 가난하더라도 근면하게 생활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인과법의 진리가 담겨있다. 입춘에는 아홉번씩 자신의 평소 소임을 되풀이 하면서 한해 동안의 복을 빌었고 그리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서당에 다니는 아이는 천자문을 아홉번이나 읽었고 아낙들은 아홉꾸리의 실을 감고 아홉가지의 빨래를 했으며. 불자들은 "나무아비타불"을 아홉번씩 9일동안 독송했다고 전한다.

입춘은 이렇게 화를 막고 복을 기원하던 날이기도 했지만 이웃을 위한 참다운 보시를 행하는 날이기도 했다. 입춘 전날 밤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착한 일을 해야 한해 동안 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밤중에 남몰래 개울가에 가서 징검다리를 놓기도 했고 가파른 고갯길을 계단처럼 다듬기도 했다. 자신의 장끼를 살려 이웃을 위한 일을 하도록 권했던 셈이다.

입춘에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믿음은 "입춘절기 좋은 철에 헐벗은 이 옷을 주어 구난공덕을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을 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을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공덕을 하였는가"라는 상여가 나갈때 상여머리에서 부르는 "향도가"에서도 알 수 있다.

입춘은 삼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삼재를 소멸시키고자 삼재 불공을 올리기도 한다. 삼재는 물, 바람, 불로 인한 재해를 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의미한다. 이런 어려움을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이겨내려는게 삼재불공이다. 삼재는 전생과 금생에 지은 업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하다. 한번 지은 업은 그 누구도 피할수 없지만 불보살님께 열심히 불공하고 서원하면 큰 재난이나 화를 피할 수 있다.

입춘을 맞이하여 불자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든 재난이 소멸하고 나날이 행복만 가득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하는 바이다.

어둠을 밝힌 우리 등잔 특별전

서울 종로 쉼박물관 3월31일까지

무명을 상징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드러내는 등잔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있는 쉼박물관은 특별기획전 '어둠을 밝힌 우리 등잔' 전(展)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와 근대의 한국전통 등기(燈器)와 서양의 촛대들을 만날 수 있다. 각 시대의 종교, 경제, 생활관습의 변화에 따라 변모를 거듭한 등잔을 한 자리에서 관찰 가능하다. 전기가 대중화 되면서 일상에서 등잔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찰에서는 여전히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의 불단에 등기를 사용하고 있다.

쉼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등잔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 시대 유물에 등잔들이 들어 있는 것을 미루어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기는 점차 단순한 조명 수단을 넘어 인간의 심미적 가치의 충족 위해 하나의 장식품으로서 아름다운 외형을 갖추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은 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잔과 촛대를 중심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면서 "전통 등잔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티베트 최고(最古) 부처님 석판 발견돼

티베트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석판이 발견돼 화제다.

최근 티베트 자치구 북부 응가리에서 히말라야 지역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석판이 발견됐다고 '더 텔레그래프'가 1월 10일 보도했다. 이 석판은 높이가 1.85m이며 부처님의 입상 모습이다. 왼편에는 24줄의 옛 티베트어가 적혀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 석판이 826년이나 838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현지 한 고고학자는 이 석판에 대해 "티베트 응가리 지역에서 불교가 매우 일찍부터 퍼져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왜 긍정적이어야 하는가?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종신서원을 하는 수녀들에게 짤막한 소감을 써달라고 했을 때 세실리아 수녀는 '참으로 행복하다거나, 크나큰 기쁨'처럼 활기 넘치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반면, 마거리트 수녀의 소감에는 긍정적 정서가 깃든 단어가 전혀 없다. 수녀의 수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연구자들이 긍정적 감정의 합계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활기차게 지낸 수녀집단은 90%가 85세까지 산 반면, 가장 무미건조하게 지낸 수녀집단 중 85세까지 산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또 활기 넘치게 지낸 수녀들의 대부분은 54%가 94세까지 살았지만, 가장 무미건조하게 지낸 대부분의 수녀들 중 94세까지 산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Robert Rosenthal)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Lenore Jacobson)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긍정적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린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개의 심리학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긍정성(정서, 인지,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초까지의 심리학은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여 정상 범주로 돌리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임상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 즉 정신장애와 부적응 문제를 연구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계발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자기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임상심리학은 정신장애 환자를 평균적인 적응 상태로 유도하고자 했다면,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행복한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마틴 셀리그만은 가장 훌륭한 치료자는 환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덕성을 파악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요인인 강점과 덕성에 관한 것이 행동덕성 체계(VIA; Virtues in Action)라고 할 수 있다. VIA 분류체계는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6개의 범주 아래 24개 강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6개의 범주는 지혜, 자애, 정의, 용기, 절제, 초월이라는 핵심덕목을 반영한다. VIA 분류체계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지혜 및 지식(wisdom & knowledge)과 관련된 강점: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개방성(open-mindedness), 학구열(love of learning), 지혜(wisdom)

(2) 자애(humanity): 사랑(love), 친절성(kindness),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3) 용기(courage)와 관련된 강점: 용감성(bravery), 끈기(persistence), 진실성(authenticity), 활력(vitality)

(4) 절제(temperance)와 관련된 강점: 용서(forgiveness), 겸손(modesty), 신중성(prudence), 자기조절(self-regulation)

(5) 정의(justice)와 관련된 강점: 시민정신(citizenship), 공정성(fairness), 리더십(leadership)

(6) 초월(transcendence)과 관련된 강점: 감상력(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감사(gratitude), 낙관성(optimism), 유머감각(humor), 영성(spirituality)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강점들을 평가하고 특히 대표적인 강점들을 발견 및 육성한다면 자신의 목표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긍정 심리 개입 연구들에게 제시한 14개의 행복 증진방법은 실천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용하다. 14개의 행복 증진 방법은 '바쁘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사교적인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기',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하기', '걱정 중단하기', '욕심은 적게, 기대는 낮게 잡기',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사고방식 갖기', '현재 지향적으로 사고하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의 결점 수용하기',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키우기', '자기다운 행동하기',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생각이나 문제 제거하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맺기',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이며, 물질적 요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성격, 종교, 건강, 내적 통제성, 여가, 봉사 등 행복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긍정 정서 갖기, 몰입하기, 긍정적 대인관계 맺기, 의미있는 행동하기, 성취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강점과 덕성을 개발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행복은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10분을 선물하며 자신의 장점과 긍정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본 칼럼에서 소개한 긍정 및 행복 증진 방법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재단 임직원 일동

바라밀지역아동센터/만다라요양원/일원어린이집/잠원햇살어린이집/초록어린이집/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양지1동 복지회관 어린이집

주식회사 서룡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7-16, 2/3층
전화번호 02-3660-5601
홈페이지 www.suhryung.co.kr

서룡은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서룡은 단순한 듯 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깃든 옷과 물건을 찾고,
그것과 함께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룡의 출발은 섬유입니다. 1963년 태남섬유공업사로 시작한 서룡은 지난 50여 년간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섬유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룡이 지속적으로 완성도 높은 새로운 소재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기존 제품이 지니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갭 Gap, H&M, 자라 Zara 등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업들이 서룡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서룡의 관심은 섬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옷장' 이라는 뜻의 여성 패션 편집 매장 가드로브 Garderobe, 영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가렛 호웰 Margaret Howell 은 서룡이 전개하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시작한 어스키스 EarthKiss는 지구를 생각하고, 아끼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 스토어입니다.

서룡과 함께 자연스러운 삶이 안겨 주는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서룡은 지금도 끊임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스키스 EARTHKISS

어스키스는 오가닉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 입니다.
티셔츠, 양말부터 바디워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매장과 동일한 이름으로 전개 되는 자체 브랜드 어스키스의 모든 제품에는 친환경 소재와 함께 '은' 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 스럽게 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7층

마가렛 호웰 MARGARET HOWELL

마가렛 호웰은 영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MHL은 마가렛 호웰 컬렉션 라인보다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세컨드 브랜드입니다. 두 브랜드 모두 로고 캔버스 백은 물론, 트렌치 코트, 치노 팬츠, 포플린 셔츠 등 영국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신세계 강남점 4층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WEST 3층

가드로브 GARDEROBE

'옷장' 이라는 뜻의 가드로브는 일과 삶의 조화를 꿈꾸는 여성 들을 위한 패션 편집숍입니다. 마가렛 호웰 Margaret Howell, 소피도르 Sofie D' Hoore, 아일린 피셔 Eileen Fisher, 플랜 테이션 Plantation, 알베르토 비아니 Alberto Biani 등의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서울 신세계 본점 2층 / 신세계 강남점 3층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2층

근본적인 한방치료

서울한의원

원장 : 장지욱(총지사 교도)

주소 : 경남 양산시 북정로 32
전화 : 055-912-8275